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9:10

CT, 기독교인들이 ChatGPT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묻고 있다

이것은 구글 검색과 어떻게 다른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터넷 안팎에서 AI 혁명이 신도들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작년 11월 출시 이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휴가 일정을 계획하고, 더 나은 코딩을 돕고, 대중문화 소네트 매시업을 만들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 ChatGPT를 사용하고 있다. 수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신학적 질문에 대해 구글

에 검색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곤 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인공지능 챗봇에 할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도구가 우리의 성경 해석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세계 AI 전문가와 ChatGPT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 왜?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난 수년간 대학생과 이십 대를 제자훈련하면서 끊임없이 받은 질문이 있다. “불신자와 연애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목적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것이기에 이 질문은 결국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답한다. 그러나 나는 이 짧은 대답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당신이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든, 아니면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훈련시키고 있든, 성경이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해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관해서 발견할 것이다. 결혼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명령 앞에서 불평하기 보다는 그 속에 숨은 보화를 기대하며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한 몸이 됨으로써 이루는 연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답도 그 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가복음 10:2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을 받은 예수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결혼이 태초에 어떻게 설계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에도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대답도 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9면으로 계속)



파블로 A. 루즈 살모네스, CEO, 엑스엘레바 그룹, 멕시코

요한복음 17:11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MMs)은 정의상 진리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성경에 관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검색 결과를 볼 때,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역류”와 추정(일명 알고리즘)을 혼합하여 나온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ChatGPT는 자체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ChatGPT에 질문하는 사람은 앵무새가 답변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챗봇의 답변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 앵무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고 해도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된다.

수만 쿠마르 플레파카, 현재 독일 뮌헨에 위치한 바이블메이트의 설립자

ChatGPT와 같은 생성형 텍스트 AI 모델은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구글링하거나 끝없이 많은 기사를 검색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AI 챗봇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서적, 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명확하며 권위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편리함, 속도, 대화형 특성 덕에 챗봇은 흔히 사용하는 소스가 되었다.

모든 구절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양한 해석과 문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성경 공부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범용 모델인 ChatGPT는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앱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증진하

거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ChatGPT 기반의 대안인 BibleMate.org를 만들게 되었다. 바이블메이트의 사명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신앙 여정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 성장에 의미있는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된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푸른초장 안신기 목사



16면 8.15 특집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열린문교회 설립 42주년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제 42주년을 맞이하여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목사 추대: 유재일 목사
담임목사 위임: 함성주 목사

일시 주후 2023년 8월 31일 (목) 오후 6시
장소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
8220 Briarwood Street, Anchorage AK 99518 Tel: 907-344-6446, www.kopcak.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열린문교회 교우일동 가미노회위임국장 천영일 목사

발행인 칼럼

No Turning Back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 사람 참으로 지독하다. 송창식씨의 예를 태웠던 사람 말이다. 그의 '한번쯤'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라. '----한번쯤 돌아서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예를 배우나----' 그의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면 야속하게도 그 사람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다가 뒤돌아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 보는 것이 큰 문제인가. 우리처럼 이민(移民) 오려다가 한두 번 뒤돌아보고 끝내 주저 않은 사람도 많으리라. 분주파부(焚舟破釜)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배를 불태우고 손을 깨트린다는 이 단어는 뒤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먹을 것을 접어두고 끝까지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진 군사를 이길 군대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뉜다. 무리와 제자이다.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긴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언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는 뒤돌아가는 자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도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뒤돌아가는 것은 물론 뒤돌아보는 것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62)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색한 자세이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도 하신다. (눅 17:32) 안타깝다. 그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기에 뒤돌아본 것이었다.

지난주일 오후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파송 예배가 있었다. 온갖 그릇된 사상으로 가득 찬 캠퍼스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 예배였던 것이다. 그날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었고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배 가운데 이런 찬송을 함께 불렀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장엄한 찬양이었고, 모든 성도들의 결연한 고백이기도 했다.

졸업생들은 예배 가운데 죄를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기 뒤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였다.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얼마나 매혹적이겠는가. 자유를 만끽할 절호의 찬스(?)에서 오히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것도 매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길이다. 그날 이런 파송의 노래가 교역자들과 장로님의 입술에서 울려 퍼졌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길을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그렇다. 오늘도 예수님은 'No Turning Back'의 제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추구하기, 나의 모든 만족

진짜 보물에 관한 토저의 가르침

하나님을 보물로 모신 사람, 그분 하나로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통한 영혼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만족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 한때 텅 빈 비어갈망으로 가득하던 영혼이 참된 기쁨을 맛보면, 결코 다시는 빈 수조 같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만족을 동시에 느끼면서 산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더 이상 주리고 목마르지 않다(요 6:35). 대신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구하며 평생을 보낸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함을 구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 신자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우리의 갈망은 단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똑같은 복음향으로는 처음에 느꼈던 즐거움을 맛볼 수 없기에 점점 더 양을 늘리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산의 아름다움을 더 맛보기 위해 매 순간 더 높이 오르는 등산가이다.

토저와 함께 하나님 추구하기

내가 막 신학 공부를 시작한 2002년, 1963년에 죽은 A. W. 토저가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어릴 때 나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공부하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시키셨고, 그때부터 나는 성경을 폭넓게 읽기 시작했다. 나의 첫 성경 NIV 검음색 양장본은 수도 없이 많은 밑줄과 하이라이트 별표로 가득하다. 그 후 나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여정에 폭 빠졌다. 특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로 알아가는 여정은 황홀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누군가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2002년, 성경 외에 나는 다른 책을 거의 읽지 않았던 나는 우연히 A. W.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을 만났다. 얼마 읽지 않아서 다음 구절을 만났다. 현대 과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경이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토저의 생각이 옳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다양한 출처를 제시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족의 근원임을 선포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로지 "한



격이시라는 사실을 거의 알고 있다. ... 한 인격을 제대로 아는 게 단지 한 번의 만남으로 가능하지 않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두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길고도 사랑스러운 정신의 교제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나는 인생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갈망을 온전히 채워 주신다.

신학 과정에서 하나님 추구하기

토저 덕분에 신학을 하는 내내 내 목표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싶었다. 하나님을

가지"만 구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과제로 삼는다(빌 3:10). 영생을 정의하는 건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라고 쓴 아우구스티누스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3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250여명의 목사 회원과 31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 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 신학사 과정(B.Th): 고졸자
- 기독교교육학석사 과정(M.C.E.): 대졸자
- 목회학석사 과정(M.Div): 대졸자
-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 전

- 본교의 M.Div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지급함

2023학년도 가을학기

기간: 2023년 8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1) 개강 예배

- 일시: 2023년 8월 28일 (월) 오후 7시 (서부시간)
- 장소: Zoom

(2) 개설 과목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Anthropology & Christology (인간론 및 기독교론)	김선중교수 Ph.D
Tuesday (화)	Theology of Genesis (창세기 신학)	김동진교수 Th.D
Wednesday (수)	Four Gospels (사복음서)	정인채교수 Ph.D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기독교인들이 ChatGPT를 통해

(1면에서 계속)

양 위 헤이, IT 실무자 겸 설교자, 싱가포르

정보를 수집,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통합, 정렬하며, 다양한 언어로 요약 제공하는 ChatGPT의 속도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능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성경적 조언을 원하는 크리스천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경 구절을 적용하도록 ChatGPT에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hatGPT의 다양한 언어 기능을 통해 성경 원어부터 다양한 현지 언어에 이르기까지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 연구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ChatGPT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ChatGPT의 답변이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개인의 성경적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교자로서 설교 원고 준비 속도를 높이는 데 ChatGPT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설교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는 ChatGPT를 통해 목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라 찬드라 코길라, , 델 테크놀로지에서 AI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제품 라인 관리자방갈로르 인도

우리는 정보 과부하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노출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정보를 요약하고 이해하고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 세대부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ChatGPT와 같은 AI 시스템에 의존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요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보는 문제점은 성경을 포함한 정보를 읽을 때 특정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도록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는 특히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자료와 정보를 찾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는 GPT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제처럼 보이도록 제작 및 생성될 수 있다. 원본 콘텐츠와 위조 또는 조작된 콘텐츠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연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보의 진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달리 정보의 출처

를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얻은 모든 정보를 신뢰할 수 있거나,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은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적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반세바 카싸훈, , 디지털 의료, e러닝 및 통신 회사를 지원한 바 있는 HR 컨설턴트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세계 교회는 서구 문화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관련 있는지와 상관없이 서구 문화를 중시한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ChatGPT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서양 문화를 더욱 미화하도록 이끄는 또 다른 도구가 될까 걱정이다. 또한, ChatGPT가 매우 다른 문화적

다음 단어 목록의 각 단어에는 확률이 할당되며, 최대 확률 또는 사람의 피드백이 포함된 강화 학습을 통해 도입된 선호도(편향) 결과에 따라 최종 단어가 답변으로 채택된다.

따라서, ChatGPT가 답변하는 모든 질문은 사전 훈련에 사용된 훈련 데이터와 모델을 미세 조정할 때 제공되는 사람의 피드백에 따라 달라진다. ChatGPT가 사용하는 인터넷 학습 데이터에는 친 기독교적인 글 모음 뿐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글 모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챗봇은 의도적으로 가짜 또는 함성 데이터에 중독될 수 있으며, 그럴듯하지만 가짜 답변을 생성하는 등 답변에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ChatGPT의 모든 답변은 신학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hatGPT는 수많은 블로그, 토론,



맥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그 해답과 적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걱정된다.

ChatGPT에 접속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인공지능이 잘 발달한 설교와 가르침을 생성한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한다. 이 정도로 발전하면 우리의 개인 성경 공부를 얼마나 더 모방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파고들고 연구할 때 일어난다. 요약과 결론만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

공공 부문 업무의 특성상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없었던 IT 전문가이자 AI 사고 리더, 인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도구는 단어 임베딩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각 단어 임베딩에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자체 내부 수학적 규칙이 있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설교, 주석, 지도, 차트, 안내서, 조직 신학 서적, 일반 기독교 서적 및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 방대한 양과 높은 수준의 성경 가르침을 간결하고 무료로 참조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ChatGPT를 사용하고 자 하는 인도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나쁜, 이 방대한 양의 지식이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되며, 힌디어나 21개의 다른 공식 언어와 같은 인도 현지 언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다.

마르셀로 카브랄, ABC2, 브라질 과학 기독교인 협회 편집자 겸 교육 관리자, , 상파울루 브라질

한편으로 ChatGPT는 기독교인(평신도와 안수자 모두)이 성경을 읽고 성경공부를 계획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그림, 주석자들의 견해, 접근 가능한 신학 전통 요약을 제공할 수 있다.

(6면으로 계속)

시론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



은하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떠오릅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굉장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같은 권력을 갖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제국의 권력계를 보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314년 동안, 황제가 자그마치 3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평균 재임 기간은 8.5년입니다. 그런데 37명의 황제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암살때문입니다. 37명 중 24명의 황제가 암살당했습니다. 다른 황제들의 죽음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살, 처형, 병사(病死), 전사(戰死) 등 황제라는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황제는 황제가 되고 로마로 즉위식을 하러 가는 길에 죽기도 했고 1년에 황제가 5번이나 바뀌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망했던 로마제국 황제의 금관은 결국 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피에르) 그러나 로마 제국 314년동안 그대도 여전히 역사 속에 변함없이 존재한 사람들은 힘없는 민초(民草)들이었습니다. 황제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고 억압과 핍박의 대상들이었으며 이름도 없이 살았던 민초들은 없어질 듯 사라질 듯 하면서도 그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생존하며 뿌리를 내렸고 점점 역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당시 기독교도 어마무시한 핍박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은 사랑과 평화,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으로 이들 민초들과 함께 했고 이들은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기독교의 민초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노예에서 자유하여 오히려 그들을 견제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자들을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서 꿈꾸는 민초(民草)들로 민생(民生)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 세상의 일부 정치성향의 권력지향적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제국 314년 동안 자그마치 37명이나 황제가 바뀌고 평균 재임 기간은 8.5년이었다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즉 화려한 꽃의 아름다운 붉은색은 열흘 이상 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 삼아 그 길을 돌이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와 내 자손들이 살아야 하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물려줘야 합니다.(Always -ing) 이를 위한 덕목들이 많겠지만 오늘 그중 하나인 '크랩 멘탈리티'를 나눕니다. 양동이 안에 게 한 마리만 담아 두면 알아서 기어 올라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의 게가 함께 있으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할 때 다른 녀석이 그 게를 잡고 끌어내려서 결국 모두가 못 나가게 됩니다. 이를 가르켜 '크랩 멘탈리티(crab mentality)'라고 합니다.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눈 뜨고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들이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생활과 일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죄성들이 모여 '사회적 집단죄성'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게 개개인과 집단 죄성에 강력하게 침투하여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어지는 미움과 증오를 이용하여 오늘 분열과 분란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교회의 고질적인 극단적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출발점은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인간의 죄성들 중 하나인 '크랩 멘탈리티' 앞에 '아니오!'를 외치며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와 나눔과 섬김의 '상생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 운동회 어느 날, 마지막 경기로 이어달리기

가 있었고 이때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결승선에 거의 다 와서 넘어졌습니다. 2등이던 아이는 곧장 달려가지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등 아이는 달리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곤 둘은 손을 잡고 함께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른들과 어린이들은 말이 필요없는 귀한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천군, 백군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표입니다. 연못에 힘이 약한 물고기가 죽으면 강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연못 물이 썩으면 승리한 강자도 따라 죽게 됩니다. 연못물이 맑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하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꿈꾸다면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 생명공동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꿈꾸며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pastor.eun@gmail.com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2차 세미나

일시: 7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302 LA CA 90006

"여러분이 참여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은 LA 카운티의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날짜	주제	강사
7/7(Fri)	자살 Suicide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14(Fri)	정신 분열증 Schizophrenia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7/21(Fri)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7/28(Fri)	수면장애 Sleep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8/4(Fri)	낙인 Stigma	양 에스더 박사 미주 정신 가정상담학 교수
8/11 (Fri)	섭식장애 Eating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워크샵 참석 베네핏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목 사님의 '행복칼럼'에 나온 이 야기입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성들과의 대담 프로그래밍 중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글을 읽은 영부인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나라님이 돼서 체통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게 됩니

까.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김 대통령이 "부인, 기자가 찍어쓰기를 잘 못 한 거요.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가 간단한 찍어쓰기 오류 때문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

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잘못 타이프를 치기도 하고, 스마트폰 오작동으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보는 찍어쓰기 오류 사례들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VS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돼지 도살자" VS "돼지도 살자."

"나 물 좀 주세요" VS "나물 좀 주세요."

"피자헛 먹었다." VS "피자

헛먹었다."

"죽을 준비해라" VS "죽"을 준비해라."

"절망했다" VS "절, 망했다."

그런데 영어문장에도 띄어쓰기 오류 사례가 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VS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있다).

푸/른/초/장

안신기 목사
(한사랑성결교회)



가리지 말고 사랑해 주고 그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그것'의 관계에서 '나-너'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관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인간관계가 열리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18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두 번째 관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유의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어려움과 기도 요청을 나누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이 쌓이고, 함께 문제를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기도응답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한 모든 제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방언도 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어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주는 능력은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회복케 하는 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관계가 주는 능력 마태복음 18:15-20



도 그들을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

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6-7)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직장에서 어렵고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영적인 능력을 나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신앙공동체에도 나타나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은밀하게 권면하고(15), 다음에는 두 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16).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권면하라(17-20)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할 때에 비난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세우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속에 있어 형제의 실수를 용납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많은 능력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값어치 있는 일임을 곧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revskahn@gmail.com

하나님 추구하기, 나의 모든 만족

(2면에서 계속)

결국,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을 모르는 영혼은 아직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선교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카메룬에서 미네소타로 옮겨서 공부하게 하셨을 때, 나는 더 부유한 나라가 가져다주는 유혹을 예리하게 느꼈다. 그래서 일기에 기도를 기록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 도시와 미국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미국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제 눈을 세상에서 돌려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의미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미국인 같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소서. 미국은 그냥 미국일 뿐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히 나의 모든 만족이요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유학 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었다.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 개척과 신학 훈련을 위해 나를 카메룬으로 옮기셨고, 다른

사람들도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만족하는 똑같은 경험을 돕는 데에 도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그 어떤 보물도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는 나를 막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를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 하나님은 내가 미국의 쾌락을 버릴 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자유를 토대로 맛보았다. 하나님을 보물로 모신 사람, 그분 하나로 온 세상을 다 가진 자이다. 세상의 수많은 평범한 보물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설혹 그것들을 손에 쥘다고 해

도, 그로 인한 기쁨은 너무도 소소해서 그의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그의 상실감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을 잃더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순전히 함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으로 다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이런 만족을 바라는 갈망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주시는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추구하라.

당신이 현재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도 희망이 있을까? 그렇다. 언제나 희망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 기도하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14)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6) 당신은 확신을 품고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껏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

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 57:15)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삼자. 그러면 그 어떤 상실도 맞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삼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버리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소유물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보물을 즐기게 하는 통로로 바뀐다. 꿈과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고통조차도 소망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제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 그리고 모든 욕망까지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온전하게 소유하게 된다.

Dieudonne Tamfu, desiringgod.org

은혜와 변화

티벳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이야기이다. 물이 귀한 곳이어서 잘 씻지를 않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로 왔다. 가오나면 오래동안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나지 않기를 시작했는데, 이유인즉 저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절로 교회 오는 모습이 바뀌어 지더라는 것이다. 말하는 것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고, 옷 입는 것도 바뀌고 새로워 지더라는 것이다. 안팎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받은 사람을, "사람 변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

신앙의 개인주의와 더불어 힘을 쓰는 것이 편리주의이다. 굳이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코로나 시기에 영상예배를 드렸음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어도 침대에 누워 전화기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주일날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코로나 때 드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나? 그렇게 반문한다. 예배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의 전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핏박이 찾아왔을 때, 저들은 핏박을 통하여 카타콤이라는 지하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골 바가지(?)를 옆에 쌓아 두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를 포기한 채 예배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브릿지를 가지고서 주의 전에 나아와 성전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며, 성경에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겠는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장애하는 편리주의의 한 방편임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한다.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되지, 굳이 몸이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핑계한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의 신앙좋은 분들은, 늘 교회 생활이 분명한 분들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의 전을 향해 나아와서 예배드렸다. 이것이 복있는 성도의 신

관점의 등장이다. 결국 신앙의 타락과 혼돈이 가져온 내용에 다름이 아니다. 이기적 개인주의의 삶, 편리주의에 입각한 신앙행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어리석은 판단의 연장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헌금을 피같은 돈을 바친다고 표현한다.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헌금의 거룩한 의무에서 자유를 원하는 것인데, 실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 버리는 통로를 열어가는 일이다.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될 때, 시험 성도가 외치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특별히, 돈의 문제를 외친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에서 생긴 일인데,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소개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말세의 때를 지나는 우리는

-개인주의, 편리주의, 물질주의-

과 성령,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상실되었다. 여전히 예배의 회복이 어려운 시점이다. 그런 현상의 중심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홀로족으로 표현되는 개인주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신앙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개인주의

하와이 혼자 있을 때에 범주의 타겟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좋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말씀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혼자만의 신앙을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앙의 필연적인 영향력과 전염성을 말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가문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지 않는가? 그 좋은 예수를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뎌 낼 수 없게 되는데, 이 예수를 전하다 보면 절로 그 사람 자신과 그 주변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가문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었다고 할 때, 가만히 빠져 올라가 보면, 반드시 미치도록 지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던 한 사람이 있음을 보지 않는가? 영적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같은 할머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개인주의에 매몰이 되어서는 결코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간증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편리주의와 악한 게으름

과 러시아 북한이 맞닿은 곳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는 제주도 극동 방송국에서 쏘아 올리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고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배드린다고 한다. 게다가 라디오 방송만 듣고도 어려운 노동의 현실가운데서도 예수를 영접하고는, 십일조를 해야 하는 줄 알고, 그것을 천조각을 껴뻬 누비 이불속에 집어넣어 방송국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 예월음에 있는 극동방송국 지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도 북한에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는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 땅을 파고 숨겨둔 선대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어 둘러앉아 소리죽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카타콤,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지하교회 등은 교회라는 장소도, 예배의 형식도 없다. 그러나 그 어느 화려한 예배당의 예배보다 더욱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일 것이다. 신령과 진전이 온몸으로 드러지는 참 예배이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드러지는 한계가 있는 예배이며, 언젠가는 밝은 광명의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친교할 그 날의 예배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광명한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골방예배를 주장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영상예배의 한계

영상예배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예배를 드릴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얼마든지 주의 전에 나아와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라는 근거없는

양 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한가?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사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안으로 오라고 말씀할 때, 마음을 방주 안에 두고, 몸은 방주 밖에 둔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지를 못했다. 교회를 떠나 멀리 이사하는 성도가 찾아와 "마음을 이곳에 두고 간다."고 말한다.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실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다. "집사님, 마음은 필요없고 몸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결국 몸이 멀리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도 나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땅이라는 물질계를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 몸이 가야, 영혼도 정신도 가는 것이고, 마침내 '사람'이 사는 것이다. 오늘날 지나친 편리주의에 근거한 삶의 형태가 많아졌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신이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는 것이다. 그 좋고 싫음의 기준도 어느 적절한 정언명법의 일 부라도 되면 좋으려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명쾌하다. '무조건 싫다.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우문이 어디 있단말인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이렇게 많이 흘러간다. 대개없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

물질주의와 타락

개인주의와 편리주의와 함께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교회의 헌금생활에 대한 약화와 이를 합리화하는 차원의 새로운

본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걸 가지고 교회 갔다 줬더니, 목사가 혼자 툭 떨어 넣어서 자기 입에다 다 집어넣었다.' 교회와 인생의 연약함을 전제하지만,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신앙생활의 전형이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영육간에 가난한 신앙의 행태가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교회의 부흥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마침내, 당연히 행해야 될 십일조의 의무조차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그저 목사가 성경해석을 청중의 입장에서 하지 못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세우신 질서들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들을 파괴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은혜이고, 하기 싫은 모든 것은 모두가 율법이라는 핏발을 하면서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

물질을 넘어서는 영적파워

평균적인 신앙은 좋은데, 물질의 문제에 항상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 결국은 물질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의 연장이기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되어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데 까지 이르지를 못한 이유이다. 목회자들이 사례가 부족함에도 은혜 가운데 일들을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이렇게 많이 흘러간다. 대개없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저들의 좋은 신앙으로, 물질 문제 그 자체를 두고서 하나님과 함께 압박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러보아야 한다. 그때 물질 부분

Q: 저는 교회의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1960년대에 일어난 히피운동과 그들의 변화에 대해 들었고 그들로 인해 CCM이 탄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가든 그로브에서 KWON

히피들의 변화

A: 코스타 메사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 있습니다. 故 척 스미스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1970년대 초에 이 교회는 주변의 히피족들(Hippies)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위 예수 운동이라고 합니다.(Jesus Movement) 히피족들은 1960대-1970년초 초에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Counter-culture(반 문화적 운동)입니다. 즉 당시의 사회의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집을 떠나 너털너털한 청바지를 입고 Rock Music을 하고 마약과 그룹섹스 및 집단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허무주의 사상에 몰든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의 갈보리 채플을 섬기던 척 스미스(Chuck Smith) 목사는 기성세대와 기성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그와 그의 아내인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다가 수많은 히피들의 물결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철야 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조직해 히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을 중심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운동을 소위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이라고 합니다.

1970년 중반기에는 초신자 수가 매달 900명에 달했고 2년간 바닷가에서 세례받은 자가 8,000명이 넘는 히피들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척 스미스 목사의 노력으로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도전에 합세하여 히피 생활에서 전향하는 젊은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히피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희실한 히피족들 가운데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르던 음악 속에 자신들의 간증과 예배의 고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는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CCM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라나타 찬양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I love you Lord입니다.

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며 더 놀라게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질서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면, 물질 문제의 악순환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끊고 맺어야 한다.

예배의 회복과 성공

교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위한 최고의 통로는 모든 신자 개인의 예배의 회복에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계계중에는, '개인주의, 편리

의, 물질주의' 사상이 있다. 이 장벽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주님의 말세지말의 증상들을 확연히 앞당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쳐서 이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여전히 주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다. 깨어 경성하는 것이다. 홍수날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몸을 피하는 것이다. 주의 전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편에 서술토록 하겠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참된 교회와 성도”

참된 교회와 성도는 영혼이 거둬나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여깁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영혼이 거둬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거둬나지 않은 영혼이 거둬날 때까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등을 기꺼이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기차게 전하고 듣고자 갈망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영혼이 거둬나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는데 진력합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들이 모인 곳에 주 여호와와 영광이 함께 하는 것으로 최고의 자부심으로 삼습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영혼이 거둬나가는 것에 관심이 적는데 숫자가 많은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척도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영혼이 거둬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 후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거둬나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거둬나지 않은 영혼을 거둬나가기까지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등을 아까워합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뒤로 제쳐두고

교회 생활 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혼이 거둬나가는 것에 관심이 적으면서 숫자에 함몰되어서 좋아라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영혼들을 거둬나가는 자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섭셨던 참된 교회와 성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함께 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는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동안에는 영혼이 거둬나가는 것보다는 숫자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순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안면인식의 천국 중, 사생활 침해·정보 유출 잇따르자 '기술 활용 규정' 공개

중국인 양모씨는 2020년 9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이용자들의 얼굴 사진과 계정 정보를 구입했다. 그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이들의 얼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해당 쇼핑물에 접속한 뒤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번호, 결제 비밀번호, 배송지 등 기존 정보를 수정했다. 기초 작업을 끝낸 양씨는 값비싼 물건을 신용 결제로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딸미가 잡힌 양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벌금 6만 위안(1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면인식 기술의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얼굴 인증은 공공건물 출입, 모바일 결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명 관광지마다 방문객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면인식 기계에 얼굴을 내밀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돼야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헤어질 가족을 찾아주는 등 사법 및 공공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이렇듯 업무와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사생활 침해, 감시 강화, 정보 유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얼굴은 지문, 홍채, 목소리 등 다른 생체 정보에 비해 노출이 잘 되고 수집하기가 쉽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부작용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얼굴을 분석해 성격, 심리, 능력 등을 평가해준다면 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안면인식 기술이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얼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해 개인 정보와 재산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규정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호텔 객실, 공공화장실 등의 장소에는 관련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규정은 또 공공장소에서 수집된 얼굴 정보를 공개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고 공공안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1만명 이상의 정보를 저장하는 업체는 30일 이내에 현금 이상 인터넷 정보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러 알래스카 '순찰'에 美 구축함 출동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대가 지난주 태평양 지역 합동순찰에 나서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즉시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 대응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초 중국과 러시아 함선 11척이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 근처에서 합동순찰을 벌였다고 6일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함대 규모는 미 해안에 접근한 중·러 함대 중 최대라고 WSJ는 설명했다.

미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존매케인함, 벤폴드함, 존핀함, 정훈함 등 함선 4대와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 등을 파견해 중·러 함선을 추격·감시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WSJ에 "우리의 항공 및 해상 자산은 미국과 캐나다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다"며 "(중·러의) 순찰은 국제해역에 머물렀고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러 양국 해군 함정은 최근 서태평양과 북태평양의 관련 해역에서 공동 해상순찰을 시행했다"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현 국제 및 지역 정세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역 미 해군 대령인 브렌트 새들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중·러 해상순찰 활동에 대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도발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카우트 모토는 '준비하라' 인데... 韓 정부 그렇게 못해"

자녀를 전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보낸 각국 부모들은 언론을 통해 열악한 대회 환경을 성토했다. 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저스틴 코넨은 5일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에서 "14세 아들이 지난 4일 밤 심각한 탈수증으로 구토를 했지만 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없었다"며 "주최 측이 충분한 음식, 더위를 피할 공간 등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500달러(약 850만원)를 들여 17세 아들 코리를 잼버리에 보낸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크리스틴 셰이어스는 CNN에 아들의 꿈이 "약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은 그게 얼마나 큰돈인지, 자기를 (잼버리에) 보내기 위해 가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국 16세 소년의 한 학부모도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잼버리 현장을 '난장판'이라고 했다"며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AP통신은 일부 대원은 잼버리를 즐기고 있었으며 철수 소식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16세와 14세 아들을 한국에 보낸 미 샌프란시스코의 레이먼드 왕은 "참가자가 되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잼버리장에서 철수해 서울에 도착한 영국 참가자들은 숙박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5명이 한방을 쓰고 250명 가까이 호텔 연회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미·독 방공시스템 매우 효과적...미사일 65발 격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후 양국의 보복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 "미국과 독일의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의 공습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독일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크림대교 근처에서 러시아 유조선선을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유조선 공격 이튿날인 5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로 남부 자포리자, 서부 흐멜니츠키 지역을 타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러시아는 킨잘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기존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65발과 사해드론 87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공격 드론 178대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남부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촌가르 다리에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촌가르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됐다고 말했다. 헤르손주 수반 블라디미르 살도도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 새도 장거리 미사일이 촌가르 다리를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공격

후 복구 작업을 위해 잠정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도는 이어 헤르손주 헤니체스크 마을과 크림반도 동북쪽 해안을 잇는 작은 다리도 포격을 받아 민간인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헤니체스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이 다리와 함께 손상돼 2만여 명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확 쪼그라든 美 중국산 수입... 공급망 다각화에 중 지 몰려

올해 미국의 대중 수입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차원의 대중 디리스크잉(derisking·위험 회피) 전략이 분명한데서 민간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을 서두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 채널 개설을 추진하며 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차원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미국의 대중 수입은 1686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8억3800만 달러)보다 24.3% 감소했다. 반면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34%나 감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며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인 중국의 역할은 20여년 전 중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합류한 이래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연구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 총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월 23%에서 지난해 말 16%로 급감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에서 지난해 4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 프린터 수입에서 중국 공급업체의 점유율은 48%에서 23%로 하락했다.

대신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이 중국의 빈자리를 점차 차지하고 있다. WP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보다 지역 공급망을 더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는 올해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가 됐다"며 "중국 인근에 있는 베트남과 태국도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기업들의 주요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공장 투자도 줄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신규 또는 그린필드(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자금) 지출은 2010년 약 100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500억 달러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80억 달러에 그쳤다. 애덤 슬레이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경제학자는 "양국 정부의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자세가 민간 부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르면 8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기독교인들이 ChatGPT를 통해

(3면에서 계속)

반면에 ChatGPT는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 적용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소셜 미디어와 함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대가로 성경 본문이 독자를 "입계"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지적, 영적 작업은 지나치게 자동화되어, 생각과 창의성 형성 과정에서 정신과 마음을 위

축시킬 수 있다.

멘자민 비마니와루한가, AI 실무자, 우간다

우간다 사람들은 영적이며, 따라서 실제 상황과 관련된 성경의 특정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ChatGPT라면 많은 사람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대다수 인

구는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국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엘리트층만 인터넷을 정보 소스로 활용했다.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고 [전문화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사용하는 채팅 기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곳에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현지 언어로 작동하는 ChatGPT와

같은 도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바일 머니 혁명에서 신흥국의 사용자 수가 선진국을 뛰어넘게 증가한 것과 같은, 서구의 사용자 수를 능가하는 ChatGPT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채택이 일어날 것이다.

ChatGPT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도구는, 성경 해석과 주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

점을 제공하며, 문맥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화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성경 해석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들은 신학 정보에 즉시 접속할 수 있게 하여,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ChatGPT는 다양한 출처를 처리할 수 있어 성경 이해에 있어 미묘한 뉘앙스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문맥, 역사적 배경, 문화적 참조를 분석하여 정확한 해석을 도울 수 있다. 이 도구는 대화식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복잡한 개념

을 탐색하여 여러 가르침을 개인적인 상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AI 챗봇은 인간의 해석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성경은 깊고, 심오하므로 전문 지식과 분별력,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AI 챗봇은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포괄적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훈련된 신학자 및 학자외의 소

Morgan Lee, CT

X. 종말론 (3)

D. 천년왕국 (The Millennium)

천년왕국은 요한 계시록 20:1-10에 나온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무천년설 (Amillennialism)

계 20:1-6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현재 신약 교회 시대로 해석한다. 요한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666, 144,000명 등).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현재 신약 교회 전체로 이해한다.

(계 20:2-3)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천년동안 "사탄이 잡혀 결박되어 짐"은 신약 교회 시대의 특징이다. 이 시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어야 한다. 70인이 복음 전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반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눅 10:17-17)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사탄의 추락 및 결박은 복음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현 교회 시대에 사탄이 완전히 박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큰 타격을 입어 복음 전파를 완전히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계 20:4-6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20:4)의 "살아서"는 이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죽었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살아서"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하늘에서 큰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한다.

그러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말은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세우시는 지상의 천년왕국에서의 육체적인 부활로 해석한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 중생한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와 죽은 자가 모두에게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신자의 육신의 몸은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불신자들은 육신의 몸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2) 후천년설 (Postmillennialism)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Christ will return after the millennium)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천년왕국은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복음이 세상에 더욱 확장되며, 교회는 크게 성장할 것이며,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회는 점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며,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곧 천년왕국 인데 (문자적인 천

년일 필요는 없다), 복음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텐데 그 끝에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여 최후 심판이 있고, 신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후천년설의 복음에 대한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3) 역사적 전천년설 (Historic Premillennialism)

교회 시대의 말기에는 대환란과 고난이 있다. 이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세대주의 전천년설은 2 단계 재림, 곧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나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이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천년을 긴 시간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실제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며, 재림 당시 지상에 생존하는 성도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들

모두 지상에서 천년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지상의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시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초기에는 사단이 결박되고 무저갱이 속에 던져진 바 되어, 천년동안 지상에는 사단의 영향이 없게 된다. (계 20:1-3)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서 사단은 무저갱에서 놓인 바 되며,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대적하지만 결국 크게 패배하게 된다. 그 후에 역사상 존재한 모든 불신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최후의 심판 후에 신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며,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들어간다.

4) 세대주의 전천년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9, 20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크게 성행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학자들마다 계

속적으로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겠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는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2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공중재림 (휴거):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재림하신다. 공중 재림은 비밀스럽게 일어난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교회 (신자들은) 휴거한다 (rapture, 공중으로 끌려 올라감). 이들의 휴거 사상은 살전 4:16-17에 근거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자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은 후, 이 땅에는 질 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세대주의 자들은 일반적으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환란 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7년 대환란 동안 지상에서는 1)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게 되며; 2) 지상에는 환란 중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매우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것

이다. 교회는 휴거되었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회개한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곧 지상에 임하게 될 천년왕국의 복음이다.

둘째로 지상재림: 7년 대 환란 후에 그리스도는 공중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어 이 땅에 천년동안 왕으로 통치하신다. 천년이 지나면 다시 배도가 일어나며, 그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참패를 당한다. 마침내 불신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영원한 상태가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주로 청교도들)을 지지했고, 한국의 장로교회는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해 왔다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의 영향).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초기 세대주의 선교사들 및 이상근 박사의 영향).

상이 곧 천국에서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급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상급이다. 천국에서 받은 상급은 서로 경쟁하거나 더욱 높아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도록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4. 천사도 심판을 받는다 (벧후 2:4; 유 6).

5. 최후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F. 지옥

브라이언 체플 (Bryan Chapell, 전 미국 Covenant 신학교 총장)은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다.

"지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의식적으로, 영원히 분리된 장소이다 (Hell is a place of total, conscious, eternal separation from the blessings of God)." 그리고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죽은 후 영원에 들어가는 곳이다." (If a person rejects God all throughout life, never submitting to him in repentance, then the person will enter eternity after death without God).

성경에는 지옥의 이미지를 "불못" (계 19:20; 20:10, 14-15; 계 21:8); "이를 가는 곳" (마 25:30); "흑암" (마 22:13; 25:30; 유다서 1:13; 계 16:10);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살후 1:9; 마 25:41, 46) 등 다양하게 묘사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지옥은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눅 16:22-24).

지옥의 형벌은 의식 상태에서 끝이 없고 영원하다 (계 14:9-11).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external conscious punishment of unbelievers)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See Philip E. Hughes, The True Image: The Origin and Destiny of Man in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89, pp. 405-407; David L. Edwards and John R.W. Stott, Essentials: A Liberal-Evangelical Dialogu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8, pp. 275-76).

그리고 제칠일 안식교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불신자들의 사후에 의식 상태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부인한다. 이들은 불신자들은 사후에 "무존재 상태" (they no longer exist: 영혼소멸설 annihilationism) 주장한다. (다음 호에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속적으로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겠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는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2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공중재림 (휴거):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재림하신다. 공중 재림은 비밀스럽게 일어난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교회 (신자들은) 휴거한다 (rapture, 공중으로 끌려 올라감). 이들의 휴거 사상은 살전 4:16-17에 근거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자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은 후, 이 땅에는 질 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세대주의 자들은 일반적으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환란 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7년 대환란 동안 지상에서는 1)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게 되며; 2) 지상에는 환란 중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매우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것

사의 영향).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4종류의 천년 왕국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4이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을 믿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E. 최후의 심판 (Final Judgment)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친다 (계 20:11-15; 행 17:30-31; 롬 2:5; 벧후 2:9-10).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 (딤후 4:1; 행 10:42; 17:31; 요 5:26-27).

2.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3. 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은 상급과 관계된 심판이다 (고후 5:10). 예수 믿는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요 5:24; 롬 8:1) 천국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에서 받는

사의 영향).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4종류의 천년 왕국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4이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을 믿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E. 최후의 심판 (Final Judgment)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친다 (계 20:11-15; 행 17:30-31; 롬 2:5; 벧후 2:9-10).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 (딤후 4:1; 행 10:42; 17:31; 요 5:26-27).

2.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

3. 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은 상급과 관계된 심판이다 (고후 5:10). 예수 믿는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요 5:24; 롬 8:1) 천국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에서 받는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Baptist, Lutheran, Presbyterian, etc.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II.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들어가며] 오웬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참조하지만 그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경에 대한 주해에 기도를 두고 있다. 그는 모든 신학의 기초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충실한 신학자였다. 그가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은 성경의 계시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17세기의 오웬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지닌 예배 의식,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 사용과 예배 의식, 또한 소시니안들과 같은 견해에 비판하며 기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화와 환경은 달라도 그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그 개혁주의적 입장 때문에 그의 글을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하기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의 개요만 읽어도 기도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에 그 개요를 중심으로 그의 글을 요약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오웬의 머리말]

1.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기도의 용도와 목적 -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신앙의 생명과 활동은 근본적으로 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온갖 오류들이 기도의 본질과 용도를 왜곡시키고 올바른 기도를 무시하게 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위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과 용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이것이 공격받고 있을 때에 이것을 살피고 방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기도의 두 가지 원리 - 성경의 계시와 믿는 자들의 경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노력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자신들

이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원리, 곧 성경의 계시와 믿는 자들의 경험을 부지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후자가 전자에 의해 판단이 되어야 할지라도, 후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자의 진실성에 대해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전통, 꾸며낸 결과들로부터 나온 모든 추론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의 문제는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과 경험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을 주실 것을 은혜로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기도할 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약속된 도우심과 후원을 기대하며 자신들이 받은 바 능력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매사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며,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3.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지침들

1)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은 피조물로서의 필연적인 의존과 순종, 더불어 이 원리에 생명과 빛을 준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관계에서부터 목사나 교사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이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루는 기도의 본질이나 방법에 대한 거부감의 없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생긴 문제들은 자신들의 말은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3) 자신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이성)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본성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사람들이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있다고 책망하신다.

4)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받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적인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뉘그러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5)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우심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고 동일하게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바 된 도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6)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다. 따라서 기도문은 자연의 빛으로 보든,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든, 편의상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7) 신자들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도문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겠다는 약속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만드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이 그러하듯이 성령의 일반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좋은 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도우심은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종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기도문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도우심을 받아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기도문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8) 성경에는 주기도나 시편, 혹은 다윗의 시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감으로 작성된 기도문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원래 계획된 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시원한 여름나기

뜨거운 텍사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여름 과일은 단연 수박이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수박을 때려서 소리가 맑고 겉면의 색이 짙은 것이면 잘 익은 수박으로 여겨 자신 있게 칼을 들었다가 실망할 때가 종종 있었다. 가끔 잘 익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이 수박 저 수박을 손가락으로 튕겨보는 나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그들은 이 수박 저 수박을 통통 때리며 잘 익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고도의 청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면 웃음이 난다. 어느 날 지인이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는 수박의 몸통을 때리며 귀를 쫑긋하고 대신 수박의 아래와 윗부분을 잘 살펴본다. 아랫부분의 배꼽같이 생긴 동그란 부분이 작고 노란색이 짙은 것, 꼭지 부분의 색은 검게 짙은 것이 잘 익은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지난 주 우리는 오래간만에 수박 고르기에 성공했다. 수박 고르기의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이 행위는 인식에 변화를 주어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떤 자매와 줌 미팅을 한다. 일주일간 각자 성경 읽기를 한 뒤 목상을 나누는 것이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2개월 보름의 시간을 지나며 자매의 모습에 변화를 감지하게 했다. 어두움이 있었던 자매의 얼굴은 갈수록 빛이 나는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자매는 혼자서 성경읽기를 하면 지속하기가 어려웠는데 모임을 위해서라도 숙제하듯 읽기를 지속하니 어디에서든, 차 안에서도 소파에서도 틈만 나면 성경을 읽게 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자신을 연중내내 괴롭히던 우울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었고 뭔가 모를 내면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 자매는 어느날 갑자기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던 딸에게 성경읽기를 통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며 성경 읽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성경 읽기는 삼십 년 넘게 지속해 오는 나의 습관이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꾸준한 성경 읽기를 해 온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려면 제발 나에게 좀 잘하게 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삼일 금식을 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읽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 이후로부터 매년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다. 이것은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리 가족이 십 년간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연고가 전혀 없던 텍사스로 올 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 성경 읽는 본문을 통해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힘입어 어려운 결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십칠 년 동안 교회로서의 기반이 약했던 지금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게 하고 이 지식은 인식에 변화를 주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면 스스로 성경을 펴고 탐독하며 묵상하는 것을 권한다. 성경 읽기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 자칫하면 영적으로 약한 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요즘,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흥통하리라" (여호수아 1:8)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TX, and HI.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초월하는 마음”

사람은 마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

하나 분명히 존재 하는 인간 존재의 실체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습니 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됴됨이를 보여 주는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을 인하여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합니다.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불행해 하기도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귀한 마음으로 인하여 행복도 누리지만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음의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보기도 합니다. 마음의 실망감으로 인해 극한 좌절을 맞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무엇을 다스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여 생명을 끊기도 하는 슬픈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8-29)

저는 이 마음의 쉼을 묵상하던 중에 <초월하는 마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믿음으로 옷 입하는 것이요. 믿음의 마음은 곧 초월함으로 귀결됨을 자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번민, 고통, 슬픔, 집착, 좌절, 상실감, 불행 의식을 가짐은 그것에 대하여 <초월하는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느끼게 되는 마음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그 사람으로 인한 그 무엇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골프라는 운동을 가끔

합니다. 미국에서의 골프는 귀족 스포츠가 아닌 동네 운동 정도의 인식임으로 목회를 하다가 지친 심신을 달래기엔 참 좋은 스포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하면서 <초월하는 마음>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하다가 골프공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한 작은 상실감의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골프공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골프공에 대하여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남의 공을 훔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골프공에 대하여 초월하는 마음으로 인해 연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작은 생활 속에 겪게 되는 사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들 일상에서 일어 나게 될 때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나 고통에 대하여 <초월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심적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 갈 때 반드시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초월하는 성숙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굴레에 매여 웃고 우는 고달픈 시간을 계속 걸어 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쉼과 자유를 얻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초월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인생의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관용하고 초월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마음의 쉼과 자유를 얻으 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살롬장애인선교회 제20회 연례 콘서트가 유튜브라이브로 열렸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온라인 음악회 열어

“사랑의 휠체어 및 생명의 양식 보내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살롬장애인선교회 제 20회 연례 콘서트 “지구촌 장애인들과 난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휠체어 및 생명의 양식 보내기” 온라인 음악회를 지난 6일(주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했다. 이날 박모세 목사는 “지난 1999년 선교회 설립이후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이 사업이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제44차 45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감사한다. 끝으로 본 콘서트를 위해 출연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노 신선미가 ‘광야를 지나며’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마중’을 불렀으며 피아노 안정희, 바이올린 김정아, 클라리넷 김희수로 구성된 트리오가 쇼스타코비치의 ‘Five Pieces’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연주했다. 이어 테너 백동휘가 ‘연’과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의 2막 2장의 곡인 ‘렌스키의

아리아’,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불렀으며 신선미, 백동휘가 ‘나,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OST ‘Tonight’을 불렀다. 이어 남가주 농인교회 수어찬양팀이 ‘심자가를 참으신’, ‘주를 양모하는 자’를 수어찬양 공연을 했으며 장애인 보컬리스트 레이첼 배가 특별출연해 영화 인어공주의 주제가 ‘Part of Your World’와 ‘Knowing You, Jesus’를 불렀으며 휠체어보내기 사역에 대한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콘서트는 박모세 목사, 박성철 사모,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백동휘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함께 불렀다. 이날 콘서트는 박모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1999년부터 2020년 3월 팬데믹 선포 직전까지 총 43차에 걸쳐 휠체어 12,951대와 기타 의료보조기 54,882점을 총 67,833명의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 왜?

(1면에서 계속)

태초에 일어난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류(남성과 여성)였다(창 1:27). 비록 하와가 나중에 아담의 몸에서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들을 “한 몸”이라는 결합된 형태로 표현한다(창 2:22-24).

아담과 하와라는 한 몸의 결합은 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아예 융접한 상태였다. 나무 조각 두 개를 강하게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접착제를 쓴다. 접착제는 두 개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붙어있는 두 개는 여전히 두 개이다. 그러나 융접은 전혀 다르다. 융접이 하는 것은 접착이 아니라 융합이다. 융합에 의해 두 조각은 아예 하나가 된다. 접착제로 붙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각각의 금속이 녹아서 아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금속이 녹는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특징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결혼이 이와 비슷하다. 단지 남자가 주도한 계약에 따라서 결합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결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융합된다. 물론 창세기 3장의 타락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까지도 영원히 바뀌버렸다.

원칙의 목적

타락의 여파로 성경의 구속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죄 많은 인간의 손에서 결혼은 이제 추악한 일탈을 겪는다. 족장들의 실패를 지나 이스

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혼에 관한 법을 주셨다.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우려한(출 34:11-16) 하나님은 앞으로 정복할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반복된다(신 7:3-4).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에게 선포된 10장의 언약 갱신 의식 과정에서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한다.

이 명령이 21세기 서양인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결한 혈통이 아니라 순결한 예배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순결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 명령의 중요성은 솔로몬 왕의 생애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솔로몬: 케이스 스터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오로지 하나, 백성을 인도할 지혜였고 그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왕상 3:10). 하나님은 상으로 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와 지혜를 주셨다(왕상 4:29-34).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다스림을 기이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충축하였다(왕상 10:1-10). 그러나 비극적으로 솔로몬은 그를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왕상 11:4).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서 여전히 돌아섰다. 나는 솔로몬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주변의 이야기지만, 나는 여태껏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다.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거부하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단지 불경건한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가요?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구속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옛 언약으로 정의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정학적 실체를 초월한다. 따라서 새 언약으로 정의되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 비록 그리스도의 왕국은 물리적 경계로 정의되지 않고 대신 땅 끝까지 확장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벧전 2:9, 15).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 결혼 윤리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한다(고전 7:12-17).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결혼인 경우에 그 자체로 인정하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자를 향한 그의 명령은 전혀 다르다. 반드시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고전 7:39). 교회에 대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말아야”(고후 6:14) 한다고 말한다.

결혼의 최고 목적

우리가 결혼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제일 수도 있고, 함께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이것이 나쁜 욕망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욕망을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쉬지 않고 물어야 한다.

뜻이 올라간 배는 의도하든 아니든 바람을 타고 떠내려가기 마련이다. 배는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결혼도 다르지 않다. 불신자와 평생을 약속하고 서로에게 충

실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면 누구라도 세상 바람에 휩쓸릴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사랑하신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좋은 결혼생활을 할 수 있고, 불신자 간의 결혼을 통해서도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려면 단지 결혼이라는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결혼이라는 배를 만드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남편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아내가 십자가와 같은 남편의 리더십에 사랑으로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자(엡 5:21-33).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의 산 증거로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와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에 둔 결혼의 성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신 심오한 결혼의 신비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연합이라는 목적을 삶의 정면과 중앙에 위치시키자. 결혼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중심으로 결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배우자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리도록(히 12:2) 돕는 사람, 하나님을 더 경배하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도와줄 사람이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써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

by Matt Boga, TGC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청소년 찬양축제 연다

창작 성가제,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 예정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제7회 청소년 찬양 축제(2023 Praise Youth Festival)를 오는 9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주복음방송(GBC)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전현미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으로 ‘창작 성가제’를 열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2일 청소년 찬양 축제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소년 찬양축제에서는 각 부문

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부문은 기악과 성악부문으로 나눠며 독창(독주), 중창(듀엣, 트리오)으로 참여 할수 있다. 자유곡 1곡과 지정곡(찬송가 편곡 또는 CCM) 1곡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9월 24일 오후 6시에는 에나하임 UMC에서 케냐 선교사 후원음악회로 열리는 ‘창작 성가제’를 개최하고 9월 30일(토)에는 감사한인교회서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는 박신화 교수. 또 10월 15일(주일)(혹은 10월 22일)

에는 ‘CCM 찬양 축제’(장소 미정)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12일(주일)에는 찬양 합창제를 계획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자세한 것은 (310)381-9835, (818)397-334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동부교계 기사판

78주년 광복절 기념 및 75주년 건국기념일 예배
78주년 광복절 기념 및 75주년 건국기념일 예배가 8월 15일 (화) 오전 10시 30분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대한민국의 웅성, G2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의: 하크네시아 교회 718-229-9191

뉴욕실버선교학교 36기 실버훈련학생모집 및 개강
뉴욕실버선교학교(회장 김재열 목사)가 실버훈련학생모집 및 개강한다. 8월 28일(월) 저녁 6시 30분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에서 개강하며 등록비는 \$100이다.
▲문의: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917-963-9356

뉴저지 베데스기도원 복음과 성령집회
뉴저지 베데스기도원(원장 최현숙 목사)은 복음과 성령집회를 8월 25일-26일(금-토) 저녁 8시에 이상목 목사를 강사로 개최한다. 베데스기도원 주소: Bethes Prayer House 810 Abbott Bl. G3, Fort Lee, NJ
▲문의: 베데스기도원 201-747-0894

디딤돌아카데미 평신도 리더 및 교육전도사 사역자 과정 모집
뉴저지 한인 평신도 교사들의 더욱 효율적인 교육 사역을 위해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평신도신학교육원인 '디딤돌아카데미'가 2023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하며 아래와 같이 개강한다. 개강 일정은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 주간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30-9:00까지 수업이 있다. 평신도 교육전도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디딤돌아카데미와 뉴저지한인교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Certificate을 수여 받게 된다. 장소: 필립스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등록비: 개인 \$100, 부부 \$150
▲문의: 서병용 장로 201-739-7733, 전윤호 집사 201-618-2262

퀸즈장로교회 50주년 기념 특별장학금 및 요셉 장학금 수여식

퀸즈장학금: 다민족 사역 별 9명, 한국총신대, 선교지, 요셉 장학금: 10명 신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예배 후 장학금 수여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요셉장학금 수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50주년 기념 특별장학금 및 요셉 장학금 수여식이 8월 2일(수)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수요일예배와 함께 열렸다. 퀸즈장로교회는 50주년 기념을 맞이해 특별장학금을 준비하여 다민족 사역(한국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별로 교역자들이 추천하고 심사한 9명의 학생들과 한국총신대학교, 캄보디아 베엘교회, 카자흐스탄 알마티퀸즈장로교회에 장학금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요셉장학재단(대표 장미은 사모)은 작년에 고장영준 목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되어 10명의 미국 내 신학생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혜 권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퀸즈장로교회 아이노스 오케스트라의 서장 연주, 정기태 목사의 대표기도,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성경봉독 차윤일 집사, 설교 김성국 목사, 화답찬양 중국어부 찬양대, 퀸즈장학금 수여식, 요셉 장학금 수여식, 축사 허경화 장로, 광고 흥

회 아이노스 오케스트라의 서장 연주, 정기태 목사의 대표기도,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성경봉독 차윤일 집사, 설교 김성국 목사, 화답찬양 중국어부 찬양대, 퀸즈장학금 수여식, 요셉 장학금 수여식, 축사 허경화 장로, 광고 흥

한나 권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시편 78:4-8)"를 제목으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희생과 눈물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전수해야 하며 장학금은 사랑과 위로이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전수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달라"고 설교했다.

허경화 장로는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무도 생각해야 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장학생들이 되어달라"고 축복하며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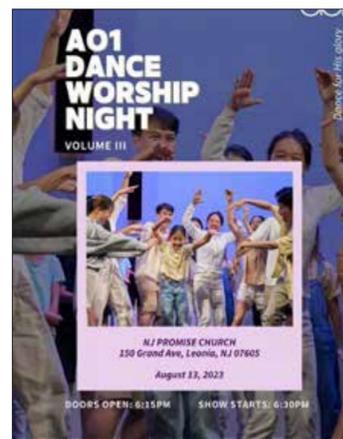
(김재상 기자)

최고의 관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춤추는 차세대 워십댄스 팀 A01 5주간 여름 캠프를 통해 신앙교육, 찬양댄스 진행

한 분의 관객, 최고의 관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춤추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워십댄스 팀이 있다. A01(Audience of One)이다.

A01 워십 댄스 나잇(Dance Worship Night)이 8월 13일(주일) 오후 6시 15분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A01은 김영준 목사가 대표로 있다. 초등생부터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워십댄스팀으로, 역동적이게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동작같이 크리스천 청소년 문화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01은 2020년 8명의 중고등부 아이들과 첫 워십댄스 여름캠프로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았다. 홈페이지(ao1dance.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여름 캠프는 5주간 동안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과 크리스천 찬양 댄스를 겸하여 가르친다. 마지막 주간에는 여름 동안 배운 댄스를 영상 촬영하고, 주일 밤에는 워십댄스 예배로 마무리 한다. 첫째에는 영상 촬영만 했는데, 2회 때부터는 워십나이트를 열면서 아이들이 실제 예배 속에서 춤추게 되었다.



A01 워십나이트 포스터

땀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해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가신다. A01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Faith팀은 고등학생, Hope팀은 중학생, Love팀은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25명가량의 학생이 캠프에 참가했으며, 웨스턴 뉴욕백민교회와 뉴욕과 뉴저지 댄스 스튜디오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십나이트는 찬양, 워십 댄스, 찬양속 메시지 클럽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맨하탄 레넌트 대학부 찬양팀과 청년 댄스팀 Flow가 특별 출연을 한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제 3차 임·실행위원회 설교 후 기도를 인도하는 이만호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 "오늘부터는 큰 복을 주리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8월8일(화) 오전 10시30분 제 3차 임·실행위원회를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열었다.

박태규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이승진 목사(예배분과위원장), 성경봉독 박태규 목사, 설교 이만호 목사(증경회장), 광고 유승례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정관위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는 "오늘부터는(학개 2:6-9:14-19)"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룩한 성전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일보다도 육신의 일이 더 빠르므로 진동시킨다. 그러나 그 진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며 "엄청나게 흔들리기 전 남은 기간 성전을 사랑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여 주님의 재림 시대에 정진 차리고 금식하며 기도 하면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와 단체 모두 오늘부터는 큰 복을 받으라"고 전했다.

이날 이준성 목사는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대회가 잘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경과 보고를 대신했다. 유승례 목사는 10.10 (매일 10시 10분) 기도는 계속될 것이며 10월 23일을 정기총회 예정일로 잡고 한달 전에 확정일자를 통보와 단 밝혔다. 이어 감사보고와 튀르키예 성금 잔액은 온전히 튀르키예 지진 돕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박태규 목사는 "걱정된 가운데 임원들 중심으로 기도로 성황리에 은혜롭게 잘 마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전하며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보고했다.

한편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헌법 제 3조 목적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들이 어지럽게 한 일 등에 대해 목사 4명을 징계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8표가 나왔다.

제 3차 임·실행위원회는 조동현 장로(이사장) 폐회 및 오찬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퀸즈장로교회, 킹덤미션 2023 온라인 단기선교

오프라인 단기선교와 함께한 온라인 선교, 총 5개국 대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8월 3일(목)부터 8월 5일(토)까지 킹덤미션 2023 온라인 단기선교를 2박 3일간 개최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10여개의 선교지로 현지 방문 단기선교 파송을 해왔지만 팬데믹의 여파로 현지 방문 선교가 중단됐던 2021년부터 선교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서 온라인 선교사역인 킹덤미션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단기선교팀을 오프라인으로 파송하여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함께 진행했다.

올해는 총 5개국(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케냐,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선교대원이 교회 안에서 2박 3일간

함께 숙박하며 나라별 현지 시각에 맞추어 Zoom과 Youtube 등을 통해 라이브로 청소년 집회, VBS 여름성경학교, 언어수업 사역, 교사 세미나, 의료 사역, 부흥회, 선교 세미나, 태권도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선교활동의 주체가 되어 리더로서 모든 선교 사역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8월 3일(목) 미 동부시간 자정에 5개국이 다함께 참여한 킹덤미션연합예배를 통해 각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현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렸다. 한편, 단기선교 케냐팀은 8월 20일에 현지로 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이다.

(김재상 기자)



ATS 동문들이 기도회 후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ATS동문회 모교위한 긴급기도회

"주님, 모교를 회복시켜 주소서"

ATS한인동문회(회장 박근재 목사)는 "ATS 모교를 위한 긴급기도회"를 7월 마지막 날 오후 7시30분 뉴욕주교회(김

연수 목사)에서 열었다. 2020년 개명하기 전에 ATS와 나약 칼리지로 한인교계에 잘 알려진 C&MA 교단 학교인 얼라이언스대학교가 8월 31일부터 모든 학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7월 초에 전해졌다. 교육국에서 재정문제를 이유로 12월에 학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에 이은 학교의 조치였다.

기도회에 앞서 경배와 찬양 인도를 시작하며 이관도 목사는 "단지 모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문을 닫는 시대의 문제"라고 안타까워 모교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동문회장 박근재 목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3)" 말

씀 본문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진다. 이 자리는 동문회 임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동문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같이하고 있다. 어떤 응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전했다.

축도를 한 김연수 목사는 "모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들이 다 은혜였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 응답하는 목회와 사역,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화) 오후 1(화)~2(수)	서울 강남순주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인천 소양교회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주최: 미라클국제선교회 (대표회장 김수이 목사)
3(목) 저녁 4(금) 저녁 6(주일)~8(화) 9(수)~11(금) 10(목) 오후 12(토) 오전	서울 강남순주교회 (강사왕 목사) 010-8331-3431 마산 광현세움교회 (이경호 목사) 010-5692-3775 인천 광복로기독교회 (최규석 목사) 010-472-0065 안원 칼렐신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분당 주영광교회 (전옥란 목사) 010-2445-169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13(주일) 저녁 14(월) 오전 14(월) 오후	서울 새샘교회 (신규식 목사) 010-6725-7040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한원신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예수사랑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010-9957-6669
14(월) 오전 15(화) 오후 16(수) 오전·후 17(목) 오후·저녁 18(금) 오후·저녁 19(토) 오전·저녁	한국기독교관 2층 대강당. 주최: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진안군 임마뉴엘 방천수영관 (원장 이광순 목사, 행정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대구 글로벌 신유복성회 (원장 김연수 목사, 담임 박종일 목사) 010-3670-8999 대전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 010-2985-9077 KK Blessing MT 서울축복교회 (김순복 목사) 주최: 선전협(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20(주)~22(화)	제 232차 해외성회 (232nd Overseas Assembly) 필리핀 (Philippines) Baquio, 200여 교회 목회자 연합 영성 수련회 운미위원회 (윤성오 선교사) 010-7574-5164 주최: 노헤미야 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23(수)~25(금)	필리핀 (Philippines) Launion (북부 루손지역) 영성충만성회 주최: 노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주관: 세계선교전략사랑부 (윤성오 선교사) 010-7574-5164
28(월)~29(화)	베트남 (Vietnam) Overseas training Session (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선 목사) (032) 219-9191
30(수)~9.1(금)	베트남 (Vietnam) Overseas MT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유수연 교육위원 초청 예배가 열렸다

나성순복음교회 유수연 교육위원 초청 예배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시점”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유수연 교육위원(ABC 통합교육국) 초청예배를 2일(수) 오후 7시30분에 드렸다. 진유철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유수연 교육위원은 ‘어두운 악한 전쟁에서 우리 차세대를 지켜냅시다(엡6: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수연 위원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30년간 열심히 사역하며 살았다. 또한 풀타임으로 비즈니스를 하며 열심히 달려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일을 줄이고 여행을 다니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는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 주신 음성은 한 세대가 멸망한다는 메시지였으며 팬데믹 기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며 “MZ세대로 불리우는 다음세대들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으며 흑암 속으로 그들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미혹하

게 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화기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부모들은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학교교재는 포르노수준이며 이는 10년전 AB329 법안이 통과 되어서”라며 “1년에 2천개이상 법안이 상정되는데 그들 중 수백개가 가족을 공격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한다. 그 대안으로 홈스쿨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홈스쿨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는 500만명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오늘날 교회는 차세대를 살리는 곳이며 우리 아이들을 같이 지켜야 한다. 홈스쿨을 받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어른들과 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이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유철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스니콘서트홀에서 열린 라크마 주최 평화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라크마...정기 음악회 성황리에 열여 “우호와 화합으로 통일된 한국과 튀르키예”

“우호와 화합으로 통일된 한국과 튀르키예(Korea & Türkiye Unified in Friendship and Harmony)”라는 주제로 월드스니콘서트홀에서 ‘베르디의 레퀴엠’을 5일(토) 오후 7시30분에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음악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튀르키예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부주 한치(Burcu Hanci)가 ‘Bozkirin Ses’로 첫번째 무대를 선보였으며 튀르키예 피아니스트 아이세데니스 고친(Ayşe Deniz Gokcin)이 본인의 자작곡 ‘Kelton’과 ‘Chaos’를 라크마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 윤임상 음악감독)와 협연했다. 그리고 Ankara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아리랑과 튀르키예의 아리랑 카티빔(Katibim)을 하나의 곡으로 편곡해서 라크마코랄과 함께 공연했다. 인 터미션 후에 열린 ‘베르디의 레퀴엠’ 공연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80명의 라크마 코랄, 64명의 라크마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유럽 오페라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8년 한국 대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미사에 솔로이스트로 발탁이 되어 한국 음악

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튀르키예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부주 한치(Burcu Hanci), 뉴욕메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한 명의 튀르키예 출신의 대표적 베이스바리톤 성악가 불락 빌지리(Burak Bilgili),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성악가 테너 오위영, LA Opera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줄리아 멧즐러(Julia Metzler)가 함께하여 음악을 통한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윤임상 교수는 “올해 연주회는 매우 뜻 깊은 연주회로 기억이 될 거 같다. 우선 한인이 중심이 되어 타민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으며, 그 안에 라크마와 월드미션대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친 후 튀르키예 커뮤니티에서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방송국에서도 이번연주회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진정한 회심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의 탈바꿈”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이민교회 미래와 나성영락교회’라는 주제로 5일(토) 오전 9시에 열렸다. 박은성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인수 교수(전 미주장신대 총장)와 김도일 교수(장신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3시간의 시간은 ‘이민교회의 미래와 영락의 정신(한경직 목사의 목회철학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김인수 교수가 강의했다. 김인수 교수는 이민교회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이민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영락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한경직 목사는 양로병원사역을 했다. 일제가 한경직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시 양로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지원했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겠다고 신사참배 조건으로 양로병원사역 지원을 제안했고 한 목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며 “주기철 목사, 안익숙 사모, 한상동 목사 등이 신사참배반대로 감옥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50여명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다. 한경직 목사가 템플턴상 시상식 때 자신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라고 말했다”며 “신사참배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회개를 한자는 한경직 목사가 유일하며 총회결의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회개를 한자는 있을지라도 한 목사처럼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회개를 한자는 없다”고 말했다. 김인수 교수는 “한 목사가 마

지막으로 목사들에게 한 말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었다. 주님을 영원한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믿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영락의 정신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주님을 영원한 구주로 믿고 나가는 것이다. 모든 영락가족들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영락정신이 계속 이어가기를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나성영락교회 제자훈련의 방향성을 위하여(진정한 회심에 대한 고찰)라는 제목으로 김도일 교수가 두 번째 강의를 했다. 그는 “기독교인의 신앙은 고백적이어야 한다.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닌 내가 직접 내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세상은 어떤 사립이건 간에 누구나 연결이 되어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연재해가 비껴가지 않듯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회심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의 탈바꿈이다. 회심은 결코 급작스럽고 일회적인 경험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죄의 습관에 대하여 충분히 고뇌하고 토론과 생활과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온전한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부디 한국교회가 상실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인수 교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김인수 교수, 김도일 교수, 박은성 목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갯스이미지 33회 정기연주회에서 갯스이미지 단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갯스이미지 제공)

갯스이미지 33회 정기연주회 성황리에 열려

갯스이미지(대표 변용진 목사) 33회 정기연주회가 터스틴 갈보리채플에서 5일(토) 오후3시와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변용진 목사는 “오늘 무대에 오르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작곡을, 그리고 최고의 삶을 드리려고 서게 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빛난 모습보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연주회가 되기를 소망 한다”고 말했다. 이날 3시 공연은 JR Team(4세부터 킨더), 샌디에고 지부, Team Two(10-11학년), Team Two(8-9학년), 시니어, 샌디에고Team One 등이 공연했으며 저녁 7시에 열린 두번째 공연

은 Love Team, Dream Team, Team One(샌디에고), Team Two(10-11학년), Team Two(8-9학년), 시니어의 무대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서창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생터성경사역원 LA 6기 전문강사스쿨 열린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대표 이애실)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2023학년 제6기 전문강사스쿨을 9월4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생터성경사역원의 ‘성경방 과정’ 수료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들에게는 목회자 장학금이 지급된다. 강의는 12번의 EL(Experience Learning)을 통해 성경방 표준 강의를 듣는 과정으로 ‘What to teach’를 배우게 되고 12번의 ML(Management Learning)은 강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How to teach’를 배우게 되며 PPT 활용 세미나도 진행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지난 5기에 이어 6기에도 미주의 시차를 고려하여 동부와 서부, Tow Track으로 진행된다. ▲ 문의: ahajausaschool@gmail.com(김성아 전도사)

충현선교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부흥집회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 부흥집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0일(목)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집회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이며 일정은 10일(목) 오후 7시30분, 11일(금) 오전 5시20분, 오후 7시30분, 12일(토) 오전 5시20분, 오후 7시, 13일(주일) 오전 8시, 9시40분, 11시30분 ▲ 문의: (818)549-9191

우미셀 목사 워십투어

재미 2세 디아스포라 사역자 우미셀 목사와 원하트가 함께하는 워십투어가 18일(금) 오후 7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19일(토)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티켓은 15불. 티켓 구입은 온라인(www.oneheart-usa.com)과 오프라인은 감사한인교회 사무실과 주님의영광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213)347-5080

KPCA 서중노회 청년부 연합수련회

KPCA 서중노회(노회장 오충성 목사)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아이들과일드 크리스천센터에서 열린다. 강사는 류인현 목사(뉴프론티어교회 담임) ▲ 문의: (714)315-4617, (505)699-4775

또감사선교교회 예배당 이전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예배당을 440 Shatto Place, 4th Fl. LA로 이전하고 지난 6일(주일)부터 새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 문의: (323)262-9191

생수의강선교교회 5인5색의 8월 집회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는 ‘5인5색의 8월’ 집회를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강사는 16일(수) 오후 7시 30분 이영숙 박사(좋은나문성품학교), 23일 신동주 목사(피츠버그한인연합장로교회), 30일 유이치로 목사(가스펠실로암교회) ▲ 문의: (562)653-0168

머무는교회 설립4주년 감사예배 및 일일부흥회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든든히 세워져”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4주년 감사예배 및 일일부흥회가 6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예배는 탈북민과 탈북민의 자녀로 7월20일부터 3주동안 샌프란시스코와 남가주로 비전트립을 하고 있는 한국 동두천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Amerasian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함께했다. 김문수 목사는 “머무는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 19팬데믹의 거센 비바람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문수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심태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재원 학생이 바이올린 특별연주와 서재호 형제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Amerasian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강노아(9학년) 학생이 간증했다. 강노아 학생은 “북한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5세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업문제로 탈북을 시도하시다 북송당하셨다. 감옥에서 나오신 후 재 탈북하게 되셨고 친형들도 한 달 후 탈북 했으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 할 때 11세였지만 저의 키가 128센티미터였고 몸무게가 28킬로그램이었다. 암흑강을 건널 때 브로커가 매고 있는 배낭 속에 들어갔는데 강을 건너다가 브로커가 발을 헛디뎠다 제가 들어 있던 배낭이 물에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가까스로 배낭을 찾아서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으며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하나원에 가게 됐다”고 탈북당시 일들을 회상했다. 그는 “어머니는 한국이 잘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암흑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지켜주셨으니 네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셨다. 저는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증에 이어 서창권 목사(전 시카고한인교회 담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요 13:34-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서창권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6)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통과의례를 알아야 바른 선교사가 된다

한 달 전에 한국민은 모두 한 살에서 두 살 젊어졌다. 외국인들이나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한국식의 나이 계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때에 나에게 당연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 새롭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문화충격으로 남는다. 단기 선교여행을 통해서 언어나 소리를 들리는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등이 특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쉽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장기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삶의 통과의례들로서 이를 잘 이해하고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문화의 깊숙한 곳을 알게 되고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통과의례는 한 개인이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또는 문화적 지위로 진입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 행사 또는 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는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종종 문화적, 영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통과의례는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출생 의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및 기타 중요한 삶의 전환과 같은 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되어있는 통과의례는 모든 문화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의례가 있더라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기에 선교사에게 새로운 문화의 통과의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통과의례를 아는 것은 문화적 이해를 돕는다. 통과의례는 한 문화의 신념,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선교사는 이러한 의식을 이해함으로써 선교사가 활동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선교사

가 외부인으로서 시작하지만, 내부인과 같은 깊은 문화적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서 어떤 통과의례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과의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사가 이러한 의식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현지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고 지역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즈음 한국에서 TV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주한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을 하고 우리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선교사는 의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과의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과의례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면 선교사가 지역사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통과의례를 이해하고 참여함을 통해 선교사는 지역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현지인들로부터 수용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선교사가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지만,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도 이런 통과의례가 중요한 관계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새로운 문화의 통과의례를 이해하고 접근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와 배우기가 필요하다. 한 문화의 다양한 통과의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즈음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에 즐비하기는 하지만 평판이 좋은 출처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적, 현지 전문가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서적은 일반적으로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서적으로 출판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새로운 정보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믿음만한 자료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첨가와 삭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거짓뉴스나 정보들이 난무하는 요즈음은 특히 가짜정보 인지를 잘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통과의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경청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현지 의식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뜻하지 않게 통과의례를 목격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통과의례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접근할 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외부인으로써 단순히 그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의례가 일년이나 수년 이후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참여관찰자는 기본적인 참여관찰조사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어떤 행사 중에 나타나는 상징, 행동,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접점은 많은 문화권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배타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통과의례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 원로 또는 지역사회 지도자의 안내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현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관찰하는 동안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무례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특히 단기선교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현지의 문화를 무시하고 전통과 관습을 쉽게 비판하고 경시하는 태도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타종교의 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타종교인이 기독교인들의 성탄행사에 참석하여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무례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선교의 이름으로 특히 타종교의 모든 의식을 경멸하는 태도를 직접 보이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타종교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그 의식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를 존중달라고 하기 전에 타인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근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커뮤니티 구성원과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에 그 문화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고, 바른 커뮤니케이션의 길이 열리고, 긍정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통과의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경험에 접근해야 한다. 다른 문화적 관행이 내게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현지 커뮤니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가는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접근 방식과 메시지를 보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문화의 통과의례를 배우는 것은 문화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복음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그

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과의례를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의미와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가면 복음 전파에 요긴한 틈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출생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의 나라들에서는 이름 짓기 행사가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식적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작명식이 종종 열린다. 가나에서는 아웃도어링이라는 첫 외출의식을, 짐바브웨에서는 제막식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소개되고 이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로 신생아에게 기도하고 축복의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동체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보름달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출생 후 한달 후 맞이하는 보름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을 무사히 보냈다는 것을 특별하게 축하를 한다. 축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색으로 염색한 달걀을 선물하는데 달걀은 다산, 생명의 재생 및 행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에 그 문화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고, 바른 커뮤니케이션의 길이 열리고, 긍정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통과의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경험에 접근해야 한다. 다른 문화적 관행이 내게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현지 커뮤니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가는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접근 방식과 메시지를 보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문화의 통과의례를 배우는 것은 문화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복음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그

절대적이었던 사회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의 1950-60년 대에는 인구의 폭발이 일어날 만큼 많은 자녀들이 나왔고, 그들의 생존이 중요한 시기였다. 그 때에도 남아 선호사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딸이 많은 집안의 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70년대가 되었을 때에는 산아제한을 국가정책으로 장려하였고, 후에는 "둘만 나와 잘 기르자"에서 "하나만"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대가 되었을 때에는 '제발 아이를 낳아 길러주세요'라고 국가적 캠페인을 벌이지만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복음은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28일부터 한국에서 공식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독특한 한국 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한국문화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계산할 때에 탄생하지 마자 나이가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부터 복음에서 존귀한 생명으로 인정된 나이라는 태아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임신중절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용이하게 되었다. 출산율 증가를 국가적 사명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가 제공된다. 중국 전통 디저트 및 기타 진미도 만찬의 일부로 붉은 색으로 장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님은 아기의 번영과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선물과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가져온다. 베트남도 이런 중국식의 의식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기회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선물을 하얀포장지에 싸거나, 하얀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큰 실례가 되는 것이다. 하얀색은 초상집에 부의금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생명의 탄생에 얽인 과정을 통해 많은 의미를 내포한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출하게 된다. 한국의 문화에서 생명의 탄생은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에는 온 집안의 문제였다. 특히 유교적 대가족 집안에서는 장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얽힌 것을 알아야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를 출산하였을 때에 어떻게 집안에 표시하고 남아선호사상이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락가)

27강(신명기 10-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5)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전합니다. 재판을 통해 악인이 밝혀지더라도 태형을 40가지는 때리되 그것을 넘기지는 말것과(신 25:1-3) 곡식 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신 25:4). 그리고 모세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죽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고 남은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성을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 하는 자에게 이

같이 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신 25:5-10). 이 제도와 유사한 상황이 유다의 아들과 며느리 '다말의 경우'이고(창 38장) '보아스와 룻의 경우'입니다(룻 3:12,13, 4:1-12). 이외에도 모세는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신 25:11,12),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신 25:13-16).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진멸하여야 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신 25:17-19).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에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출 17:14) 하였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출 17:16).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인생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과 같습니다. 아말렉은 사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삿 3:13, 6:3,33, 7:12, 10:12).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말씀하신대로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 하셨지만(삼

상 15:3)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고(삼상 15:1-31) 대신 아말렉의 상징인 왕 아각은 사울 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삼상 15:32,33). 다시 다윗을 통해 1차로 멸하고(삼상 30:1-25)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을 살 에스더와 모르드개에 의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에 3:1)과 그의 열 아들은 죽어 나무에 매달려(에 7:10, 9:10,25)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말합니다(엡 6:12).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한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쟁과 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신 26:14,15)라고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수록 그들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신 26:16-19).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욕심, 열심의 이야기, 돌아서면 다시 죄악을 행하고 들어도 들어도 잊어버리는 그 때에야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부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산 제사의 삶 (롬 12:1) 찬 289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산 제사의 생활을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구원 후에 따라오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몸을 모두 드리

야합니다. 몸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좌정하실 성전이 되게 하려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셋째, 생축을 죽여 불태워 송두리째 드리는 제물의 삶입니다. 산 번제가 없는 거룩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친히 거룩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산 제사의 삶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화 영적 예배 (롬 12:2) 찬 535장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물처럼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혼으로 예배함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까요? 사도는 말하기를 첫째,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표준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생각의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마음은 생각에 쫓겨맞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제어하는 상태 (롬 8:5-7)를 말하며,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후 10:5)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인 영적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수 적절한 삶을 살려면 (롬 12:3) 찬 405장

사도는 산 제사 곧, 영적 예배의 삶을 생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적절한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것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큰 구원을 받았다고하여 안일의 삶을 경계하며 완성을 향해 육의 부패성과 늘 싸우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칠 족속과 싸운 것처럼 영적 전쟁을 통한 평안을 기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만이 이깁니다. 둘째, 은

사를 따라 적절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생활은 은사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균형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만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빌3:12-13)

목 은사를 존중하자 (롬 12:4-8) 찬 446장

구원에 뿌리를 내린 영적 예배란 소극적 삶이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 모든 방면에 열매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서 교회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할까요? 첫째, 자기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4) 교회의 다양한 지체는 제각기 은사를 가집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

내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4-5)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함, 다스림, 공헌배움 등의 은사로 각기 기능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6-8) 그리스도의 형상, 의, 인, 신(마 23:23)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금 사랑을 이루라 (롬 12:9-13) 찬 294장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은사를 활용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사랑은 참 구원 위에 세워진 은사의 총화입니다. (9-10) 그래서 은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곧이어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그 바탕이 거짓이 없는 진실이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인 우애와 존경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수고가 따름

니다. (12-13) 사도는 사랑은 수고가 따름을 강조합니다. 경쟁과 열심과 근면을 통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의, 인, 신(마 23:23, 눅 11:43)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토 일원론의 삶 (롬 12:14-21) 찬 189장

계속되는 사도의 생활지침은 믿음과 행함이 연결된 일원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복음 안에만 의와 인과 신이 충만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받아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14-15절에 나온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율법은 복음으로 이깁니다. (16) 율법은 표준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자

세히 가르쳐주는 복음의 가정교사입니다. (갈 3:24)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그 자리로 가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20-21) 성령은 율법의 최고봉인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20)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생활에까지 이루게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40)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참 좋으신 주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수단과 목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John Piper, 1946-)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기이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종 전 단계이지 최종 단계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고 그 바람 또한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나 구속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9: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장면에서 특이하게 바라보이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를 세 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에서의 순종과 신뢰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김기영 님이 쓴 안팎 "참 좋으신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신뢰를 담게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목적을 바르게 제시하는 찬양입니다. 전반부를 통해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내 품에 안기라"는 주님 말씀을 서정적인 멜로디로 담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후렴

구를 통해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을 받은 위로 상승시켜 가며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곡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하게 이 곡을 종결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제시한 말씀과 찬양 "참 좋으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세상 일들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목적으로 매 주일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심신이 지쳐있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야 합니다. 마치 이 시간이 내 생애에 있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송축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7-1758)가 쓴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천지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 뿐이고 그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는 제시합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인도자들이나 찬양을 드리는 음악인들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회중들이나 동일한 예배자들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분명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구분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도구들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iyoa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지용주 목사 (시라큐스 한인교회)

난민 친구를 본향에 보내며

(오도넬 이야기)

지난 7월의 마지막날 한 난민 친구의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다. 지금까지 여러번의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오늘은 조금 가슴앓이가 있는 장례식이였다.

2015년 11월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한 아이티출신 난민 친구 오도넬 (Odonel Archange) 형제는 우리 교회의 몇 안되는 난민 출신 교인이다. 나이는 40밖에 되지 않지만 4딸의 아버지요, 3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이기도 했다. 불어와 영어가 유창했고, 항상 주말이면 말씀하게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티의 신사였다.

우리는 2015년 11월 8일 주일 처음으로 만났다. 설교 후 광고 시간이었는데, 그날 처음 출석한 오도넬 형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발을 짚고 설교단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자기가 당뇨병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교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나와 교인들 모두가 놀랐다. 그러나 그의 요청이 너무 간절했기에 나와 교인들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지금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질병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 날부터 오도넬 형제는 매주 교회에 나왔고, 그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목발 없이도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2016년 4월 부활절, 오도넬 형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는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후 우리 교회 보아즈 사역에 참석하여 다른 난민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강의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컴퓨터 기술을 배웠다. 보아즈 프로젝트 (Boaz Project)는 지난 2007년에 시작된 우리 교회 난민 사역으로써, 시라큐스 지역으로 이주해온 난민들을 돌보고 그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



오도넬 형제의 세례식

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나라 이스라엘에 온 난민이었던 모압 여인 룯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보아즈처럼 이 땅에 온 난민들에게 컴퓨터를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봄학기, 가을학기 각각 10주 동안 창세기 1:1의 말씀과 요한복음 3:16의 말씀을 토대로 컴퓨터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 뿐만 아니라 Clothing Drive와 Picnic을 통해 함께 친구가 되어 주는 시간을 갖는다. 이 사역을 통해 지금까지 40개국에서 온 1700여명의 난민 친구들을 만났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도넬 형제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는 부도교를 믿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또한 믿지 않았던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게 하기도 했다. 가족이 있는 뉴저지로 갔었지만 채 3주가 되지 않아 이곳이 더

좋다고 다시 시라큐스로 돌아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나는 그가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견디어 갔고,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다. 복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에 좋았다. 진정한 복음을 알았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그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 항상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했고, 매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은 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로서 살았다.

그러던 지난 7월 22일, 수영장에서 심장 쇼크를 일으켰고, 결국 오도넬 형제는 그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는 모두 슬퍼할 겨를도 없는 힘든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오도넬 형제를 떠올리면 좀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깊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빨리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다.

지난 7월 31일, 그의 가족과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그가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가졌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를 볼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본



보아즈 프로젝트 Clothing Drive



오도넬 형제의 아내 로미즈의 세례식 후

향으로 가는 그를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했다.

어느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복된 자' 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으로 마무리되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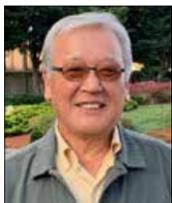
나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항상 생각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며, 그 죽음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오도넬 형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복음의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보기로 한다.

workman4yeshua@gmail.com

정원에 핀 아티초크 꽃송이



송찬우 목사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정원에 3년 전에 새끼 아티초크 한 폭을 사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정도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잎이 크고 넓는데 겨울 추위에 도 주눅 들지 않고 여름처럼 딱 버티고 색 하나 변치 않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을 그렇게 자라고 옆에 새로운 싹을 티

어서 또 자라고 곁에 네 개의 싹을 티워 함께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티초크 꽃을 3년이 지나도록 보여주지 않고 화단만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번 뽑아버릴까 고민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꽃

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닌 8개의 봉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 모두 잘라서 너도 주고 나도 갖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네 개만 잘라 요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두 달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야 보라색 꽃술을 부끄러운 듯이 살며시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기다리를 잘 했네. 요리한 네 개도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

고 기다림의 그 기쁨을 마음에 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후회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네가 아티초크를 그렇게 기다려 준 결과로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준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나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제게 속삭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다 음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9, 10)."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티초크: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영경귀 과의 다년생 식물. 섬유질이 많아 죽순처럼 아삭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분류상으로는 채소지만,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에서는 미각을 돋우기 위한 향신료처럼 취급했다) chansong_hase@hot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신앙 에세이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인생 캔버스, 어떤 그림으로 채워 갈 것인가

목사에게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한 주를 마감하는 날처럼 여겨집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주가 끝나는 느낌이지만, 마지막 설교 후에 강단을 내려오면 곧바로 다음 주 설교에 대한 부담이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 목회자의 삶은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로 들어올 때면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로 주일 예배 후에 병원이나 가정에 심방을 마치고 돌아 가면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웃도 같아입기 전에 드러눕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 이 순간 어떻게 보내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선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며 웃을 갈아입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일의 삶을 두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란 펼쳐지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알고 순간순간 아름답게 그려가야 할 캔버스와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라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그 하루를 어떤 그림으로 채워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뿐인 나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어떤 그림으로 채워야 할까요? 좋은 환경을 타고 태어났거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면 화려한 내용으로 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때로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채도 우리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캔버스 앞에 서야 합니다.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 어떤 그림이 가장 의미 있는 그림일까요? 화려한 색깔로 눈에 속히 들어오는 것보다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애뜻한 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고난의 흔적이 또렷한 여정이라 해도 하늘이 주시는 기쁨에 평안의 미소를 짓는 그림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굽이진 길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늘을 향해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쳐있는 누군가를 붙들고 일으키는 손을 볼 수 있다면 아무리 초라한 캔버스라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캔버스를 바라보시고 한순간이라도 미소를 짓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내 작은 삶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늘이 더욱 푸르듯이, 산천이 푸름으로 물들어가듯이 주님의 사랑에 물든 영혼으로 자신의 인생 캔버스를 소중히, 더욱 소중히 그려가기를 바랍니다.

preachchrist@kcpc.org

8.15 기념 특별기고 바닷물도 춤을 추는 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귀중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규를 외치기도 하고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으면 바닷물도 춤을 춘다'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8월에는 우리 민족 역사의 현장에서 그런 자유를 몸부림치면서 구가했다가 되찾았던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오던 우리에게 자유가 회복되고 광복의 감격이 주어진 8월 15일 광복절이다. 금년이 78주년이다.

그날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컸으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우리 선조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서로 얼싸안고 목이 터져라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겠는가?

귀한 자유를 되찾은 열매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3년 만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이다. 만약에 그때 공산주의 체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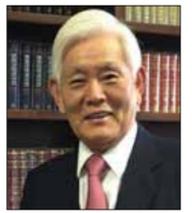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를 얻기 위한 갈망과 독립에 대한 여망이 마음 깊은 곳에 흐르고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식민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내 자유를 다시 회복하자는 열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 몇 번이나 독립에 대한 뜻을 모으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1776년 7월 4일 대외적으로 그 독립선언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독립 만세를 부르며 독립에 대한 봉화를 들어 올렸다. 그 일로 인해 투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피 흘리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집이 불타고 교회가 무너진 곳 한두 곳이 아니었다. 아픔의 응어리가 지금도 남아 있을 지경이다.

이웃 나라의 주권을 찬탈하고 빼앗은 다음 계속해서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는 야욕으로 미국을 1941년 12월 7일 공격하고 2차 대전을 유발시켰던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송정명 목사 (미주성서화운동 공동대표)

교육열이 높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원조를 받아오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고 세계 200여 나라 중 경제 대국 12권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다. 우주 강대국으로는 7위에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한류의 열풍을 온 세계로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 아픈 구석이 남아 있다. 아직도 북녘에서 자유를 잃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도 짐승 같은 여건



“78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도, 건국 75주년 기념일도 놀랍고 가슴 저며오는 환희의 날이다. 우리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한다.”

나라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해 오지 않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 건국 75주년 기념일도 광복절과 같은 날이다.

놀라운 일ियो 가슴 저며 오는 환희의 날이다.

우리는 그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현장을 다시 조명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비슷한 전철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전쟁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영국에게 이기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한 영국의 국왕은 1783년 9월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도자들이 독립 선언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 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경술년 이던 1910년 8월29일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주권을 빼앗기는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그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통곡했는지 모른다. 산천도 울었다.

그 이후 8년 반이 지난 1919년 기미년 3월1일에 죽음을 담보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해서 독립선언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일본의 천왕이 1945년 8월15일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항복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게 되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선언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지 26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광복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위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독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눈물과 땀으로 기도해 왔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실감 되지 않는가?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신생국들 가운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의

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저들도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광복절을 맞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탄 마귀에게 사로 잡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떤 손길에 사로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낸다. 그 손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기억하는 8월이길 소망한다.

revjmsong18@g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Grid of book covers with titles and authors: 'The Prodigal God',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묵상과 기도', '인음을 묻는 딸에게, 아버가', '사랑하는 리더십', '특별한 부르심'.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